

분야별 심포지움 참석보고

사회경제복지

하 영 수
(이대 간호대학장)

세계 각국 회원협회(National Nurses Association, NNA)에서 3명 내지 4명의 대표들(약 150여명)이 참석한 사회·경제복지(Social Economic Welfare, SEW)에 관한 공동연구(Workshop)는 지난 7월 1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ICN Convention Center Room 212A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ICN의 사회·경제 복지 전문가들이 ICN회원협회(NNA)들을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SEW

SEW에 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NNA회원들로 구성되어었는데 이 그룹의 워크샵의 목적은 SEW향상을 위한 NNA의 노력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었다.

사회는 그간 ICN의 SEW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해온 Sheila Quinn이 맡았다.

한편 그룹II는 SEW에 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NNA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원하는 NNA 멤버들이 모인 집단으로 SEW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Toini Sou Siainen이 사회를 맡아 별도로 진행되었다. 이 그룹II의 워크샵의 목적은 SEW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어떻게 제공해 줄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 그룹 II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아이슬란드 등 선진국 NNA대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답 것인지 혹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색하는데 있었다.

워크샵 프로그램의 진행은 사전에 각국 NNA를 통해 ICN이 종합한 질문지 회신내용을 근거로 사회경제 복지문제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NNA대표들과 타 NNA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원하는 NNA대표들을 각각 그룹I과 그룹 II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중 그룹 I은

본인은 한국간호협회(KNA)를 대표해서 그룹 I에 참가했다. 먼저 ICN이 각국 NNA를 대상으로한 SEW Questionnaire에서확인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노동관계 혹은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에 관한 중요쟁점에 대한 중요
- 1) 산업노동관계, 특히 집단적 흥정관계(Collection bargaining) 전문가 훈련에 관한 도움
- 1) 간호원들을 위한 SEW 문제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NNA를 강화하는데 대한 도움

1) 산업노동관계 훈련과정, 장학금, 교환 및 교류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보

1) 협상권(Negotiation right)을 포함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권리를 NNA도 가지므로 법적 지위를 얻는데 대한 도움

1) ILO Convention 149의 ratification을 얻는데 대한 도움

1) 산업노동관계에 대한 단기간 자문의 제공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그룹토의가 이어졌는데 이때 여러나라 NNA멤버들이 진지한 발언을 통해 자기나라 고유의 SEW문제를 노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원과 간호단체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NNA는 노력하고 있다. 요지에 있는 영향력있는 인사들에게 간호원들의 SEW문제를 홍보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NNA가 SEW문제에 대한 법적협상을 할수 있는 권한(legal negotiation right)을 갖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ICN이 도와주면 좋겠다.

1) 집단적 흥정을 하기 위하여는 Trade Union 혹은 Labour Union에 가입하여야 한다.

1) NNA는 어디까지나 professional body로 존속하므로 자체적으로 SEW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Trade Union이나 Labour Union이 정당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NNA를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 professionalism과 trade unionism간에 조화를 이루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 NNA도 법적 협상을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집단적 행위(collection action)인 파업(strike)을 수단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봉급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벌이 파업을 응답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중대사업에 불리하다.

특히 이 파업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NNA멤버들이 계속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제기하였고 토의에 참가했으며 또 파업의 경험이 있는 NNA들은 파업의 이유와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많은 토의끝에 결국 파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각국 NN

A들에 의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또 ICN의 입장은 결코 자기 상황이 다른 NNA에 가입할 수 없음이 천명되었다.

4시 20분까지 그룹별 워크샵을 끝낸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그룹 I와 그룹 II 멤버들이 한데 모여 전체토의를 가졌다. 그룹 II에서 토의된 간단한 보고를 들은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곧바로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있었으며 그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SEW 프로그램은 ICN의 스태프 멤버가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NNA간의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고 SEW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1. SEW문제에 관한 NNA들간의 경험을 활발히 교환 혹은 교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각국 NNA간에 자매결연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1. 지속적 통신연락을 통해 SEW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NNA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SEW워크샵에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바는 첫째, 세계 대다수국의 NNA간호원들이 처우개선, 봉급이상, 법적지위향상 등 거의 공통적인 SEW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특히 여러 적개발국가 NNA간호원들이 SEW향상을 위해 참으로 진지한 노력을 하고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KNA의 경우 간호원들의 SEW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성을 안고 있으며 발달국가의 간호원들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많은 적개발국가 NNA들에 비해 좋은 상태라는 점이였다.

끝으로 우리는 이상의 ICN convention에서 확인된 SEW문제를 중심으로 1) SEW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행정권을 어떻게 획득할수 있는지? 2) Professionalism을 고수할 것인지? 3) Unionization을 보편화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가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진지한 전체적 의견종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간호원들의 전문직 간호에 대한 철학과 목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SEW향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